

西班牙語와 파라니語의 相互接觸에 關한 研究

——파라과이의 요빠라(Yopará)의 경우——

金 熙 貞

(한국의국어대 강사)

I. 序 論

本 論文은 二重言語 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파라과이 言語를 構造的으로 분석함으로써 파라과이 언어 固有의 特異性을 고찰해 봄과 동시에 새로운 제 3의 언어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本 연구를 위한 이론적 근거로는 파라과이의 二重言語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파라과이 언어의 現 위치를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일반이론에 적용되지 않는 파라과이 언어의 特異한 언어현상에 대해서는 本土의 언어인 파라니語와 스페인의 殖民地化로 이식된 西班牙語의 접촉과정을 共時的이고 通時的인 방법을 통해 고찰해 봄으로써 언어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요빠라(yopará)¹⁾ 현상에 대하여 가능한 한 定義를 내려 보고자 노력하였다.

파라과이에는 西語와 인디안 원주민 언어인 파라니語가 450여 년이 넘게 균형을 이루며 공존해 왔다. 오늘날 파라과이에서 西語만을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은 全體 人口의 4.4%인데 반해 파라니語만을 할 줄 아는 사람은 全體 人口의 45.1%에 이르고 있으며 이 두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은 全體 人口의 48.4%나 된다. 다시 말해서, 西語를 할 줄 아는 사람은 52.8%인 데 비해 파라니語를 할 줄 아는 사람은 93.5%에 달한다.²⁾

이와 같이 다른 中南美 國家와는 달리 유독 파라과이에서만 土着語인 파라니語를

1) 요빠라(yopará)란 용어는 파라니어로는 jopará라고도 사용하는데 파라과이어의 철자 y가 파라니어의 철자 j와 가장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파라과이식 표현으로 y를 사용하겠다.

2) Bartomeú Meliá, "Hacia una tercera lengua en el Paraguay," en *Estudios Paraguayos*, Asunción, vo. 2 (1974) N° 2, p. 41.

西語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 西語와 함께 母國語로 인정하는 바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本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과라니語가 지금까지 살아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인디안인 과라니인의 수에 비해 정복자인 스페인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으며 地理적으로 本土 스페인과의 교류가 고립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고등문화기관의 설립과 유지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선교사들의 복음활동이 토착어를 필요로 했고 오늘날 파라과이인들의 어머니인 인디안 여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다. 그녀들은 소멸되어가는 인디안 종족과 증가해 가는 혼혈인 사이의 진정한 仲介人 역할을 했다. 파라과이 民族에게 있어 과라니語는 그들 어머니의 母國語인 것이다.³⁾

이와 같이 450여 년이 넘도록 두 언어가 並存하여 오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이두 언어의 並存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요빠라(yopará)가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二重言語 혼합현상은 西語가 과라니語에 이식된 경우와 과라니語가 西語에 이식된 경우가 있는데 前者를 과라니-서반아어(Guarani-español)라 칭하고 後者を 서반아-과라니어(Español-guarani)라 칭하겠다.⁴⁾

이들 二重言語 혼합현상들은 단순한 言語交替(Language switching) 현상만으로는 볼 수 없는데 이는 이미 두 언어의 혼합에 의한 복잡한 구조적 결과를 요빠라(yopará)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파라과이 언어현실의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과라니語의 간략한 文法 소개와 함께 파라과이에서의 과라니語의 위치 및 파라과이인들의 과라니語에 대한 의식구조 또한 살펴보기로 한다.

필자는 本 연구가 二重言語를 사용하는 사회에 대한 넓은 이해와 특히 파라과이에서의 특이한 언어 현상의 이해를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필자의 8년 간에 걸친 파라과이에서의 체험이 어떤 의미에서 本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3) Lorenzo L. Banks y Juan Dávalos, "Las lenguas del Paraguay," *Centro Paraguayo de Estudios Sociológicos*, Asunción, 1981, p.52.

4) 일반적으로 과라니語에 西語가 침투한 경우를 요빠라(yopará)라 칭하고 西語에 과라니語가 침투한 경우는 el español del Paraguay라 한다. 파라과이의 西語를 표준 西語와 비교할 때 그 변형이 다른 中南美 국가와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없을 만큼 복잡하므로 필자는 이와 같이 칭하였다.

Ⅱ. 본 론

1. 파라과이의 二重言語

1.1. 파라과이 二重言語의 개념

일반적으로 二重言語(bilingüismo)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지만, 서로 다른 두 言語를 母國語처럼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뜻한다. 그러나 현재는 광의의 의미로 두 言語를 交替해 가며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기도 한다.

파라과이의 二重言語 現象을 Ferguson은 國家的 次元에서 세계에서 유일한 二重言語 형태라고 규정하였다.⁵⁾ 그러나 이와는 달리 파라과이의 二重言語 現象을 二重言語並用(diglosia)⁶⁾이라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며 심지어 二重言語國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Bartomeu Meliá는 二重言語並用(diglosia)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파라과이의 二重言語使用(bilingüismo)을 개개인의 특성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특성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二重言語 現象은 사회적인 현상과 개인적인 현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파라과이의 二重言語 現象은 사회적 현상이며 地域적으로는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二重言語(bilingüismo social)란 개개인 모두가 二重言語使用者(bilingüe)가 아니라 公式적으로 두 언어를 國語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⁷⁾

한편 Livieres와 Dávalos는 파라과이의 언어 현상에 대한 한 論文에서 二重言語使用者라 일컫는 사람의 대부분이 어떤 한 언어에만 유창하고 다른 언어에 대해서는 한정된 일상생활의 영역에 국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1964년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두 언어를 똑같은 정도로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⁸⁾

이 조사 보고서에 따라 Philipson이 파라과이人들은 두 언어를 완벽하게, 혹은 거의 완벽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二重言語使用者라고 주장한

5) Bartomeu Meliá, "Hacia una tercera lengua en el Paraguay", p. 31.

6) Macmara, citado por Bartomeu Meliá, "Diglosia en el Paraguay o la Comunicación desequilibrada", en *Suplemento Antropológico de la Universidad Católica*, Asunción, vol. 8 (1973), N° 1-2, p. 134.

7) Leonardo Manrique C., "Algunas observaciones sobre el bilingüismo del Paraguay, *Centro Paraguayo de Estudios Sociológicos*, Asunción, 1981, p. 62.

8) Lorenzo L. Banks y Juan Dávalos, *op. cit.*, p. 60.

것은 잘못된 이론인 것이다.

또한 全人口의 4.4%만이 西班牙語 單一使用者(monolingües españoles)인 반면에 45.1%가 파라니語 單一使用者(monolingües guaraníes)이고 두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二重言語使用者(bilingües)가 48.4%라는 1962년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José Pedro Rona 역시 파라과이를 일반적인 二重言語使用國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⁹⁾

이와 같이 二重言語使用國이 아님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파라과이에는 분명 두 언어, 즉 파라니語와 西語가 並存하며 두 언어 모두 共用語로 쓰이고 있고 全人口의 48.4%가 二重言語使用者임을 고려하여 本 論文에서는 이런 논란을 배제하기로 한다. 사회적 二重言語(bilingüismo social)에서는 두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二重言語使用者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本 論文은 미국 인류학자 Joan Rubin의 「National Bilingualism in Paraguay」¹⁰⁾란 제목의 論文에 의거, 파라과이를 國家的 次元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二重言語使用國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1.2. 파라과이 二重言語의 特徵

1.2.1. 地理的 場所

파라과이 二重言語 現象의 特異한 현상 중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地理的 場所’에 따라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¹¹⁾ 따라서 파라과이의 이중언어 현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居住者의 위치에 있다 하겠다. 다시 말해서 居住 場所에 따라 파라니語를 말하든지 西語를 말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촌에서는 파라니語 사용자가 압도적이며 도시에서는 西語사용자가 지배적이다.

물론 首都 아순시온(Asunción)에서 파라니語를 전혀 들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西語만을 사용하는 추세가 날로 명백해지고 있고 농촌에서는 파라니語만을 사용하는 사람이 높은 수에 이르고 있다.¹²⁾

9) José Pedro Rona, “El status social y cultural del guaraní en el Paraguay”, *Centro Paraguayo de Estudios Sociológicos*, Asunción, 1981, p. 265.

10) Joan Rubin, “National Bilingualism in Paraguay”, Yale University, Ph.D., Anthropology, 1963.
“Bilingüismo Nacional en el Paraguay”, México: Instituto Indigenista Interamericano, 1974.

11) Bartomeú Meliá, “Hacia una tercera lengua...”, p. 50.

12) Bartomeú Meliá, “Hacia una tercera lengua...” pp. 50-51. y “El guaraní dominante y dominado”, en *Suplemento Antropológico de la Universidad Católica*, Asunción, vol. 8 (1973), N° 1-2, p. 46.

〈도표 1〉 아순시온과 지방 人口의 언어별 분포도¹³⁾

	서반아어	파라니어	서반아어 파라니어
1962 센 서 스	아순시온 39,210(14.7%)	아순시온 21,736(8.1%)	아순시온 203,129(76.1%)
	지 방 32,306(2.4%)	지 방 714,802(52.3%)	지 방 588,275(43.0%)
합 계	아순시온 : 264,075 지 방 : 1,335,383 합계 : 1,599,458 35,229* 1,634,687		

* 타 언어이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람 : 35,229.

위의 도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아순시온에서는 西語와 二重言語使用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밖의 지방에서는 일상언어로 파라니語가 월등히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더욱 확실히 알아 보기 위해 파라카이의 家庭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조사해 보기로 하자.

〈도표 2〉 도시 및 농촌 가정에서의 일상언어¹⁴⁾

서반아어		파라니어		서반아어 파라니어		합 계	
아순시온	지 방	아순시온	지 방	아순시온	지 방	아순시온	622*
256	163	53	692	302	411	지 방	1,337
41.2%	12.2%	8.5%	51.8%	48.6%	30.7%		1,959
수도권	농 촌	수도권	농 촌	수도권	농 촌	수도권	1,340
408	11	287	458	613	140	농 촌	619
30.4%	1.8%	21.4%	74.0%	45.7%	22.6%		1,959

도표 (2)에서는 도시와 농촌에서의 이중언어현상의 차이가 더 명백해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西語와 파라니語의 기능영역이 서로 다름을 뜻한다. 두 언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章에서 논하기로 한다.

1. 2. 2. 性(sexo)과 年齡(edad)

二重言語使用이 共時的인 교육을 통한 결과라는 원칙을 인식한다면 性(sexo)과

13) Bartomeú Meliá, "Hacia una tercera lengua...", p.51.

14) Ibid., p.52.

年齡(edad)이 話者의 分布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은 결코 기이한 현상이 아니다. 아래 도표 (3)에서 과라니語 單一使用者, 西語 單一使用者, 그리고 二重言語使用者의 性과 年齡別 分布를 살펴보기로 하자.

〈도표 3〉 파라과이에서 性과 年齡에 따른 언어별 통계¹⁵⁾
(A) 서반아어 단일 사용자

연령	남자	여자	합계
3~4	4,890(49.6%)	4,960(50.4%)	9,850
5~14	11,615(47.1%)	13,048(52.9%)	24,663
15~44	10,919(40.6%)	15,976(59.4%)	26,895
45~64	3,526(46.7%)	4,018(53.3%)	7,544
65 이상	1,240(49.0%)	1,290(51.0%)	2,530
합계	32,190(45.0%)	39,292(55.0%)	71,482

(B) 과라니어 단일 사용자

연령	남자	여자	합계
3~4	44,891(51.5%)	42,353(48.5%)	87,244
5~14	138,151(52.7%)	123,809(47.3%)	261,960
15~44	124,244(47.9%)	135,211(52.1%)	259,455
45~64	36,596(41.7%)	51,132(58.3%)	87,728
65 이상	15,590(38.9%)	24,528(61.1%)	40,118
합계	359,472(48.8%)	377,033(51.2%)	736,505

(C) 서반아어·과라니어 이중언어 사용자

연령	남자	여자	합계
3~4	14,256(50.3%)	14,104(49.7%)	28,360
5~14	112,946(49.8%)	113,965(50.2%)	226,911
15~44	202,041(48.6%)	213,985(51.4%)	416,026
45~64	47,197(50.3%)	46,623(49.3%)	93,820
65 이상	13,284(50.9%)	12,795(49.1%)	26,079
합계	389,994(49.3%)	401,332(50.7%)	791,326

도표 (A), (B), (C)에서 보듯이 과라니語만을 사용할 줄 아는 남녀의 비율이 가장 두드러진 差異를 보인다. 과라니語만을 사용하는 여자의 數는 나이와 더불어 增加하여 65歲 以上の 경우는 61.1%에 달하는 반면에 같은 年齡의 남자의 경우는 38.9%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二重言語 구사능력에 관해서는 같은 年齡의 남자가 여자보다 두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학

15) *Ibid.*, p. 48.

교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西語와의 접촉 기회가 더 많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대개의 농촌지역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학교를 다니게 되고 西語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접촉도 남자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층에서 볼 수 있듯이 과라니語만을 사용하는 사람과 두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혹은 西語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의 不均衡은 이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으로 접하는 언어가 과라니語이며 家庭에서 사용하는 언어 역시 과라니語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¹⁶⁾ 그런데 이들이 二重言語使用者라 불리워지는 단계는 그들이 학교교육을 시작하는, 즉 西語와 처음 접하게 되는 때가 되어야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二重言語使用者의 數가 젊은 世代에서 增加하는 것은 과라니語는 家庭에서, 西語는 학교에서 배우는 그들의 현실을 반영해 주며 과라니語 單一話者와 西語 單一話者의 접촉이 增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 연구에서 참조한 1962年¹⁷⁾의 통계보다도 젊은층의 二重言語使用者 數는 더 높다고 할 수 있겠다.

1. 2. 3. 地位(poder)와 連帶意識(solidaridad)

聽者와 話者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언제 西語를 사용하는지, 혹은 과라니語를 사용하는지가 결정된다.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地位(poder)와 連帶意識(solidaridad)¹⁸⁾이다. 地位(poder)란 글자 그대로 어떤 개인의 신분에 따르는 자리나 계급을 뜻한다. 連帶意識(solidaridad)의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거리를 뜻한다. 예컨대 얼마 만큼의 경험을 나누어 가졌으며, 얼마 만큼의 사회적 특징을 나누어 가졌고 어느 線까지 親密感을 나누어 가질 준비가 되었는지 등이다.

이와 같이 과라니語를 사용하는 특정한 경우가 언제이고 또 어느 경우에 西語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Joan Rubin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는데 Joan Rubin의 분석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두 힘, 즉 地位와 連帶意識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地位의 세 등급(優等, 劣等, 同等)과 連帶意識의 두 등급(連帶, 非連帶)을 조합하면 6가지의 결과를 얻게 되는데 다음과 같다.

- 가. 서로 다른 두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 중 第一話者가 第二話者보다 地位가 높거나 連帶意識이 없는 경우에는 西語를 사용한다.
- 나. 서로 다른 두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 중 第一話者가 第二話者와 地位가 같으

16) *Ibid.*, p. 51.

17) 1962년도 이후에는 二重言語使用에 관한 통계조사가 없음.

18) Brown Roger; Gillman Albert, "The pronoun of power and solidarity," *Style in Language*, The technology Press, 1960, pp. 253-276 참조.

나 連帶意識이 없는 경우에는 西語를 사용한다.

다. 서로 다른 두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 중 第一話者が 第二話者と 地位가 같고 連帶意識이 있는 경우에는 瓜라니語를 사용한다.

라. 서로 다른 두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 중 第一話者が 第二話者보다 地位가 낮고 連帶意識이 있는 경우에는 瓜라니語를 사용한다.

마. 서로 다른 두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 중 第一話者が 第二話者보다 地位가 높고 連帶意識이 있는 경우에는 瓜라니語를 사용하나 존경의 표시로 때때로 西語를 사용할 수도 있다.

바. 서로 다른 두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 중 第一話者が 第二話者보다 地位가 낮고 連帶意識이 없는 경우에는 瓜라니語를 사용한다.

위의 경우들이 二重言語를 사용하는 瓜라과이의 두 話者が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위의 분류에서 볼 수 있듯이 瓜라니語의 사용이나 西語의 사용은 差別의 의미를 내포하는 社會言語學的 규범에 따른다. 다시 말해서 西語는 支配者 소유언어의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 瓜라니語는 被支配者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瓜라과이인들은 海外에서는 地位의 차이를 잊고 連帶意識의 표시로서 瓜라니語를 사용한다.¹⁹⁾

또한 瓜라과이의 二重言語 現象은 또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瓜라니語를, 혹은 西語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지리적 要因에 의해서도 정해지는데 이는 이들 두 언어가 근본적으로 서로 一致하기 어려운 意味領域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中産層과 上流層의 西語는 技術·行政分野 및 일상회화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전반적인 表現領域을 갖고 있으나 瓜라니語는 어떤 특정한 의미, 구체적으로 科學이나 기술분야는 표현할 수가 없다.²⁰⁾ 이러한 이유로 Bartomeú Meliá는 “瓜라과이는 二重言語使用國이나 瓜라과이인들은 二重言語使用者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²¹⁾

이와 같이 瓜라니語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의 의미전달을 西語로 하기 때문에 두 언어의 혼합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그러한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오늘날의 요빠라(yopará)의 탄생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瓜라과이의 언어현실의 特異性은 瓜라니語와 西語를 사용하는 二重言語 現象에 있기보다는 이 두 언어코드(código lingüístico)의 혼합에서 빚어진 요빠라(yopará)에 있는 것이다. 요빠

19) Bartomeú Meliá, “El guaraní dominante y dominado”, p. 45.

20) *Ibid.*, p. 48.

21) *Ibid.*, p. 45.

라(yopará)의 言語學的 분석은 제 3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파라니語의 一般적 特徵

本章에서는 파라니語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하기로 한다. 西語의 基本構造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 바 파라니語의 一般적 特徵 및 전반적인 概要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系統의 관점에서 볼 때 파라니語는 tupí-guaraní語에 해당하며 類型別 분류에 따르면 交着語에 해당한다.²²⁾

그러나 파라니語의 構造는 정립된 어떠한 형태의 類型에도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파라니語는 屈折語와 交着語의 特徵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²³⁾

2. 1. 철자법(Alfabeto)

1950年 Montevideo회의에서 'Cultura Guaraní'란 단체의 제의로 파라니語의 철자를 統一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 회의에서 公式적으로 33개의 音素와 33개의 철자를 파라니語의 가장 적합한 알파벳으로 확정하였다.²⁴⁾

2. 1. 1. 母音

파라니語의 母音體系²⁵⁾는 12音素로 구성되며 두 그룹으로 나뉜다.

母音(vocales orales)은 6개로 다음과 같다.

a, e, i, o, u, y

앞의 5개는 西語와 같이 發音되며 마지막 母音 y는 喉音이다.

鼻母音(vocales nasales)은 母音(vocales nasales)과 같으나 鼻腔의 진동을 要하며 tilde(~)²⁶⁾로 나타낸다.

예) ã, ě, ĭ, ô, ũ, ŷ

2. 1. 2. 子音

파라니語의 子音體系²⁷⁾는 21개 音素로 구성되어 있다. 西語의 子音과 비교하여

22) Sara Delicia Villagra de García, "La palabra. Sus clases morfológicas en la lengua guaraní", *Suplemento Antropológico de la Universidad Católica*, Asunción, vol.5 (1970), N° 1-2, p.163.

23) *Ibid.*, pp.163-164.

24) Antonio Guasch, *El idioma guaraní*, Ediciones Loyola, Asunción, 1978, pp.19-20. Natalia de Krivoshein de Canese, *Gramática de la lengua guaraní*, Asunción, Colección Nemity, 1983, pp.23-24.

25) Antonio Guasch, *op. cit.*, p.23.

Natalia de Krivoshein de Canese, *op. cit.*, pp.24-25.

26) Tilde /~/는 circunfleja(^)나 rayita(-)로도 표현할 수 있다.

ã, ě, ĭ, ô, ũ, ŷ=ã, ě, ĭ, ô, ũ, ŷ

27) 자음체계는 Antonio Guasch, *op. cit.*, pp.19-30 y Natalia K. de Canese, *op. cit.*,

불 때 파라니語 고유의 자음은 ġ, mb, nd, ng, nt, '(pusó)이다.

ġ는 폐쇄연구개비음(oclusiva velar nasal)으로 母音 a와 e하고만 音節을 형성한다. 二重母音 gua, gue, gui, gai, gei와 二重母音 guai가 있다.

mb와 nd는 단어의 첫 머리에 나오는 音素이며 각각 폐쇄순비음(oclusiva labial nasal), 폐쇄치경비음(oclusiva alveolar nasal)이다.

ng와 nt 또한 複合鼻音(nasales compuestas)으로 전자는 폐쇄치경음(oclusiva alveolar), 후자는 연구개음(velar)이다.

생략부호 (') 역시 하나의 철자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Pusó²⁸⁾라 불리는 폐쇄후음(oclusiva glotal)으로 항상 두 모음 사이에 쓰인다. 특별한 발음은 없으며 소리의 차단(interrupción del sonido)이 Pusó의 역할이다.

2. 2. 파라니語의 起源

파라과이인들에게 있어서 파라니語의 歷史는 파라니族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들 파라니族들은 아메리카 정복 당시에는 브라질의 東南部 지역으로부터 파라나, 파라과이, 우루과이江 사이에 걸친 넓은 지역과 아맘바이(Amambay)와 므바라까주(Mbaracayú) 산맥 등 남미대륙의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²⁹⁾

물론 이 광활한 지역에서 한 언어만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서로 다른 언어그룹이 이 넓은 대륙에 퍼져 있었는데 그들 중 오늘날 파라과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 남부지방에서 쓰이던 파라니語는 Avañe'é(人間的 언어)라 일컫는 언어였다. 오늘날 파라과이에서 쓰이는 파라니語가 바로 Avañe'é이다.³⁰⁾ Avañe'é는 다시 세가지 變種으로 구분되는데 서로 전혀 알아 들을 수 없다고 한다.³¹⁾

German de Granda에 따르면 el guaraní tribal, el guaraní jesuítico 혹은 misionero 그리고 el guaraní paraguayo로 나뉜다.

現在 파라과이에서 사용되는 파라니語는 el guaraní paraguayo이며 파라과이 全人口의 94%인 약 삼백오십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파라니語 變種 중 가장 많은 사람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³²⁾

本 연구는 El guaraní paraguayo에 입각한 것이며 앞으로 guaraní(파라니語)라고만 칭하겠다.

pp. 25-26. 참조.

28) Pusó는 파라니語이며 그 뜻은 소리의 차단(interrupción del sonido)이다.

29) Livieres y Dávalos, *op. cit.*, p. 46.

30) Marcos A. Morínigo, "Unidad y diferenciaciones del guaraní", *Suplemento Antropológico de la Universidad Católica*, Asunción, vol. 8 (1973), N° 1-2, p. 110.

31) Natalia K. de Canese, *op. cit.*, p. 15.

32) *Ibid.*, p. 16.

2.3. 파라니語의 歷史的 背景

파라니語가 언제부터 파라과이에서 사용되었는가?

파라과이인들에게는 파라니語의 사용이 스페인 사람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파라니語가 오늘날 파라과이인들, 즉 Criollos³³⁾의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들 Criollos는 정복 이전에는 존재치 않았었기 때문에 파라니 話者 역시 그 이전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³⁴⁾ 물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엄밀히 말하면 파라니語의 歷史는 정복 이전 몇 천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파라과이인들은 그것을 스페인인의 정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두 文化의 접촉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로 하겠다.

스페인과 파라니族의 生物學的 交叉에 의한 混血人(mestizo)³⁵⁾에 의해 파라과이가 형성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다른 한편으로 파라니 文化와 西班牙 文化의 文化의 충돌에서 後者가 승리한 것 또한 사실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비록 西班牙語 文化가 승리하였지만 파라니語가 살아남았다는 점이다.³⁶⁾ 일반적으로 支配와 被支配의 관계에서는 支配者의 언어가 被支配者의 기존 언어를 흡수하기 마련이며 우세한 文明 言語를 사용하는 것이 通例인데도 불구하고 파라니語는 이러한 점을 뛰어넘음으로써 45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그 중요성이 점점 더해가고 있다.

계속해서 파라니語를 파라과이 歷史에 비추어 照明해 보기로 한다.

2.3.1. 植民地 時代의 파라니語

스페인인들은 1537년에 처음으로 파라과이에 정착했으며 그 때부터 파라니語는 西語와 함께 광대한 지역을 나누어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Bartomeú Meliá에 따르면, 植民地 時代의 파라과이는 파라니語를 일상언어로 사용하였으며 家庭과 거리와 밭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植民地 사회는 처음부터 公式의으로 西語를 公用語로 사용하였고, 파라니語는 行政과 文化分野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³⁷⁾

33) Criollos란 부모는 스페인 사람으로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을 칭하는 용어이다.

34) Bartomeú Meliá, "El guaraní dominante...", pp.41-42.

35) Mestizo란 한쪽은 스페인 사람이고 다른 한 쪽은 아메리카 원주민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칭하는 용어이다.

36) Marcos A. Morínigo, "Impacto del español sobre el guaraní", *Centro Paraguayo de Estudios Sociológicos*, Asunción, 1981, pp.500-600.

37) Bartomeú Meliá, "El guaraní dominante y dominado", pp.41-42.

Marcos Morínigo 역시 西語는 행정기관, 학교, 종교적 기능, 그리고 軍隊에서 公式語로 쓰였으나 파라니語는 일상언어, 親密言語 그리고 感情의 언어였다고 주장하였다.³⁸⁾

植民地 파라과이人들은 자신들이 비록 mestizo이고 인디안 언어를 말한다 해도 文化的 觀點에서는 스페인人으로 간주하려고 하였으며 西語를 명예의 상징으로 생각했고 스페인 귀족의 자손이라 믿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인디안 血統을 부끄러워 한 것은 아니었다. 1570년경 植民地 생활의 主導權이 그들의 손에 달리게 되자 파라니語의 사회적 위치가 견고해졌는데 이는 그 당시 파라과이人들이 파라니語를 인디안 언어라 하여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또한 파라니語만으로도 全人口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태도가 西語를 公式語로 사용하는 데 장해요소로 작용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西語는 權威(prestigio)의 언어로 간주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上流層이 그 사용자였기 때문이다.

한편 文化的 바탕이 결여되어 있던 植民地 파라니語는 이미 뚜렷하게 文學의 바탕을 갖고 있던 西語와 접촉하게 되면서 차츰차츰 土着語의 특징을 모두 갖춘 파라니語로 변모하기 시작했다.³⁹⁾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파라니語와 西語의 혼합은 이미 그 뿌리가 植民地 時代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두 개의 서로 다른 意味領域을 갖고 있는 파라과이語의 二元性은 文化的 지배에서 창출된 構造的 結果라 하겠다.

2.3.2. 初期 獨立政府의 파라니語

독립한 이후에도 상황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獨立革命이 바로 Criollos에 의해 일어났기 때문이다. Livieres와 Dávalos의 주장에 따르면 Criollos들은 西語의 우월성을 인정하면서 정치 및 경제기반을 튼튼히 하였다. 西語는 이제 정복자의 언어 뿐 아니라 그들의 언어이기도 한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西語만이 새로운 근대적 기반의 의사소통 도구로서 內外的으로 신국가의 구성과 창조를 가능케 하는 언어인 것이다.⁴⁰⁾

Gaspar Rodríguez de Francia⁴¹⁾ 정권기의 교육정책은 새로운 파라과이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근본적 核心이 되지는 못했으나 국민학교 교육은 적극 지원

38) Marcos A. Morínigo, "Impacto del español...", pp.599-600.

39) Bartomeú Meliá, "El guaraní dominante...", p.41.

40) Livieres y Dávalos, *op. cit.*, p.52.

41) Gaspar R. de Francia, Luis G. Benítez, *Historia cultural del Paraguay*, Asunción, Comunerios, 1976, pp.110-117. 참조.

했다. 그는 우선 파라니語와의 투쟁을 선포, 파라니語의 사용을 금했으며 이로인해 土着語의 재평가 내지 투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Gaspar R. de Francia가 죽고 Carlos Antonio López가 권위에 올랐다. 그는 교육 체제를 재구성하였으나 교실에서는 파라니語가 계속 금지되고 있었다.

1850년경 당시의 파라니語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잘 반영하는 매우 귀중한 증거를 발견하였다. Juan Crisóstomo Centurión의 회상을 글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학교와 교실에서 파라니語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이런 금지의 효과를 보기 위해 각 학급의 長에게 파라니어로 이야기하다 걸린 학생에게 건네주는 銅으로 만든 몇개의 고리를 나누어 주었다. 학급의 長은 이 고리를 파라니어로 말하다 적발된 학생에게 주고 이 학생은 또 다른 학생에게 벌칙으로 건네 준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 토요일까지 계속하여 벌칙으로 이 고리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자기 동료 중 한 명의 어깨에 매달려 네 다섯 대의 매를 맞았었다.”⁴²⁾

이러한 교육 정책은 反인디안 감정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인디안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Bartomeú Meliá는 주장하기도 하였다.⁴³⁾

1862년 Mariscal F. Solano López가 Gaspar R. de Francia를 뒤이어 권좌에 올랐다. 그는 2년 후에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믿기 힘든 전쟁의 지휘자가 된다. 그 전쟁이 바로 Guerra de la triple alianza이다. 이름 그대로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우루과이 간의 전쟁이다. 이 전쟁이 계속된 5년 동안 파라니語의 역할은 참으로 거대했다. 파라과이의 국가적 상징 뿐 아니라 전투에서 의사소통의 도구로 쓰인 것이다. 적군이 이해할 수 없는 암호와 격려문 등을 파라니語로 사용하여 적군으로부터 여러 측면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⁴⁴⁾

이와 같은 파라니어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反파라니주의(anti-guaranismo)란 흐름이 발생한다. 이 反파라니주의 운동은 아르헨티나로부터 선생과 교수들을 초빙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해외로 추방된 파라과이인들과 파라과이에 행해지는 아르헨티나의 통제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이 反파라니주의는 Chaco 전쟁(1932~1935)까지 계속되었으나 Chaco 전쟁 동안 정치문제와 농촌운동에 의해 쇠퇴했으며 파라니語에 대한 肯定的・否定的 이중태도가 나타나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성향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⁴⁵⁾

42) Graziella Corvalán, “La educación formal y el bilingüismo en el Paraguay, C.P. E.S., Asunción, 1981, p. 400.

43) Bartomeú Meliá, “El guaraní dominante...”, p. 42.

44) Graziella Corvalán, “La educación formal...”, p. 401.

45) *Ibid.*, p. 401.

과라니어 배척정책이 수그러들고 교육제도에 과라니語를 포함하는 정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부사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⁴⁶⁾ 왜냐하면 이들에게 어느 정도 西班牙語를 과라니語보다 더 가치있게 생각하는 사고가 잔재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940년에 들어서서야 과라니語의 復活(Renacimiento)이 시작되는데 Reinaldo Decoud Larrosa가 그 첫번째 先驅者이다. 1944년에 첫번째 機關으로 Escuela Superiores de Humanidades에서 과라니語의 교육계획을 세웠고, 마침내 1972년에 아순시온 國立大學 소속 언어기관에서 과라니語의 대학과정을 만들어 인디언 언어에 大學次元의 수준을 부여하게 되었다.⁴⁷⁾

오늘날에는 TV와 라디오, 광고에서도 과라니語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의 여러 계층에서 사용되고 있다. 上流層에서는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1944년에 처음 설립된 Escuela Superior de Humanidades는 4년 후인 1948년에 아순시온 國立大學 國文學科가 되었다.⁴⁸⁾

2. 4. 과라니語의 社會的 位置

파라과이에서 과라니語를 할 줄 아는 능력은 과라니語를 母語로 사용하든지 혹은 제 2外國語로 사용하든지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비록 사회적 상승은 西語를 얼마 만큼 잘 하느냐가 크게 좌우하지만 실제로는 과라니語가 이런 과정에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파라과이에서 사회적 差別은 과라니語 單一使用者와 과라니語와 西語 二重言語使用者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단지 西語만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사회적 差別 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사회적 상승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⁴⁹⁾

本章에서는 과라니語의 파라과이에서의 사회적 역할과 파라과이인들의 과라니어에 대한 의식구조 및 태도를 다루기로 한다. 그럼으로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파라과이의 언어현실을 이해하고자 한다.

2. 4. 1. 과라니語의 役割

과라니語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앞 장에서 언급된 두 전쟁에서 愛國心을 고취시켰던 한 요소라는 점에 있다.

인디언 언어인 과라니語는 전투중에 암호로 쓰였으며 군인들에게 배부되는 신문도 과라니語로 발간됐고 과라니語 노래와 음악은 군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46) Bartomeu Meliá, "El guaraní dominante...", p. 43.

47) Graziella Corvalán, "La educación formal...", 401.

48) *Ibid.*, p. 406.

49) José Pedro Rona, *op. cit.*, p. 253.

격려 또한 파라니語로 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파라과이 군대는 西語로 된 명령에는 전혀 복종하지 않았지만 파라니語로 하는 명령에는 열정을 갖고 복종하였으며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았다고 한다.⁵⁰⁾

파라니語의 또다른 중요한 역할은 正體性(Identidad nacional)의 고취이다. José Pedro Rona는 모든 파라과이인들이 파라니語를 독립된 국가가 되기 위해 가장 절실한 표현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⁵¹⁾

어떤 언어와 그것을 말하는 나라 사이에는 서로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다.

Garvin과 Mathiot은 파라니語가 바로 파라과이 國民을 파라과이 國家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正體性은 언어에 의한 것이 지 인디안을 祖上으로 共有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⁵²⁾ 그렇기 때문에 파라과이에 移民을 온 사람들은 파라니語를 배워야 진정한 의미에서 파라과이인으로 인정 받게되는 것이다.

歷史家인 Justo Pastor Benítez는 “시작은 正體性的의 媒介體인 파라니語로 실현된다.”⁵³⁾라고 강조하였으며, 결국 파라니語를 말하는 것은 두번 파라과이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⁵⁴⁾

이와 같이 파라니語는 파라과이 民族魂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이며 그들의 가장 값진 傳統的 古文書인 것이다.

2. 4. 2. 파라니語에 대한 파라과이인들의 태도

二重言語를 사용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 다른 類型의 태도를 유발하는데, 이들 태도 중 어느 것은 사회가 그 언어에 지정한 감동적 가치를 반영하고 다른 태도는 사회적인, 혹은 사회 속에서 결정된 어떤 단체의 관점에서 어떤 한 언어에 부여한 가치를 반영하는 반면에 어떤 한 언어의 公式의 속성의 관점으로부터 그 언어의 가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⁵⁵⁾

파라과이인들은 그들의 二重言語 상황에 대해 여러가지 태도를 취하는데 대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언어에 대해 二重的(ambivalente)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50) Garvin y Mathiot, “The Urbanization of the Guaraní Language: A problem in Language and Culture”, J.A. Fishman(ed), *Readings in the Sociology of Language*, The Hague, Paris: Mouton, 1968, p.38.

51) José Pedro Rona, *op. cit.*, p.252.

52) Garvin y Mathiot, *op. cit.*, p.369.

53) Cfr. *El Paraguay y su ciudadanía*, *Ibid.*, p.369. 재인용.

54) Cfr. *El solar guaraní*, *Ibid.*, p.369. 재인용.

55) Joan Rubin, *op. cit.*, p.5.

이들 二重言語使用者 중 西語를 선호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과라니語의 중요성 역시 인식하고 있으며 반대로 과라니語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二重言語使用者 또한 경제적 혹은 문화적 분야에서 西語의 국제적인 중요성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비록 兩 언어에 대해 肯定的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과라니語보다 西語를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이는 西語를 잘 구사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았거나 혹은 개화된 지식인으로 간주되는 반면 과라니語만을 구사하는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고 교육을 못받은 사람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과라니語만을 하는 單一言語使用者 자신들도 西語를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Tavi(바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西語를 학교에서 비로소 배우기 때문에 이들 과라니語 單一使用者로 하여금 교육정도를 측정하는 데서 기인한다 하겠다.⁵⁶⁾

이러한 과라니語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인들 대부분이 그들의 二重言語使用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다. 高學歷者라도 종종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과라니語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의 파라과이인들이 과라니語를 할 줄 안다는 것은 아직 그들이 과라니語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에 계속되는 Concepción 도시의 어느 중·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들의 二重的인 태도에 대해 좀 더 명백한 이해를 돕는다.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兩 언어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때에도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교육으로 생각돼 온 적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言語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과라니語를 배척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社會의 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과라니語로 듣는 것은 조금 의아한 일이지는 하지만 과라니語를 사용한다고 하여 그것을 不適合하다고 생각하거나 批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言語이기 때문입니다.”⁵⁷⁾

2.4.2.1. 忠義(Lealtad)

“언어학적 忠義”란 용어는 Uriel Weinreich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자신의 언어를 固守하려는 사회의 바램이며 필요하다면 外來語로부터의 침범을 방어하는 것을 뜻한다.⁵⁸⁾

파라과이에서 言語學的 忠義란 과라니語에 대한 태도이지 西語에 대한 것은 아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모든 言語學的 비평은 과라니語의 불충분함이나 否定的인

56) *Ibid.*, p. 56.

57) *Ibid.*, p. 57.

58) Uriel Weinreich, *Languages in Contact: findings and problems*, The Hague, Paris: Mouton, 1974, p. 99.

자질에 따른 것이지 西語의 자질에 관한 것은 아니다. 파라과이에서 西語의 사용을 금지한 적은 없었다. 이처럼 西語를 배척한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西語를 향한 특별한 忠義心을 보여주는 것 또한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과라니語에는 지속적인 배척과 동시에 그 방어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배척과 방어를 통해 과라니語에 대한 忠義心이 생겨났으며 오늘날에는 現정부의 정책에 따라 배척정신이 많이 감소되었다. 이 정책은 과라니語를 파라과이의 國家的 상징으로 특징짓는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上流層에게 과라니語가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 과라니語의 일반적 사용과 과라니語에의 새로운 가치부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다. ‘과라니 作家協會’가 바로 그것인데 現정부는 이를 과라니語의 보호기관으로 책정, 그들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言語學的 忠義心을 자극했다고 할 수 있다.⁵⁹⁾ 또한 과라니語를 보존하려는 이런 모든 노력은 과라니語의 소멸이 우려되어 발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과라니語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나 파라과이가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는 한 과라니語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도 있다.

과라니 作家協會會長은 과라니語가 소멸되기에는 파라과이 생활 전반에서 과라니語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파라과이인들은 과라니語로 살며 과라니語로 사랑하고 과라니語로 사고한다고 한다. 그는 또한 과라니語를 國家의 심장, 파라과이 民族의 진정한 魂의 상징이라고 인정하였다.⁶⁰⁾

이와 같이 오늘날 과라니語는 파라과이의 국가적 발전을 후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정신적 발전을 위해 肯定的 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파라과이의 독특한 개성을 인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과라니語에 대한 배척정신은 정부가 과라니語를 국가에 대한 忠義心의 상징으로 간주, 방어 투쟁을 계속하면서 사라졌다. 과라니語는 파라과이 국가의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2. 4. 2. 2. 自負心(Orgullo)

自負心(orgullo)은 파라과이의 언어학적 特殊性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또다른 태도이다. 파라과이 二重言語에서 두 언어 중 어느 쪽에 자부심을 느끼는가를 예측하기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언어의 자부심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 사회적 지

59) Joan Rubin, *op. cit.*, pp.57-59.

60) *Ibid.*, p. 60.

위가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더 선호한다든가 인디언 언어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西語와 과라니語는 모든 파라과이인들에게 자부심의 대상이 된다.

과라니語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농담을 즐기고 詩를 쓰기 위한 대화의 매개체로서 과라니語를 선호한다. 이들 중 어떤 이는 西語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특정한 개념을 과라니語가 해주기 때문에 과라니語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西語가 항상 自負心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西語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더 광범위한 통신수단으로 유용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그들의 귀중한 文化的 유산이라고 생각한다.⁶¹⁾

그러나 파라과이인들이 과라니語를 더 자랑스러워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과라니語가 바로 파라과이를 이웃 나라들과 구별해 주는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나라들 중에서 자기 고유의 언어, 인디언의 언어를 소유하고 있는 唯一한 국가로서 自國의 특성을 찾으려고 애쓰는 中南美 다른 국가를 위해 좋은 예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단지 소수의 계층, 즉 아순시온의 신흥 부자와 이민은 사람 중 약간만이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데 그들은 과라니語를 열등한 언어로 생각하고 인디언 언어라 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는 것이다.⁶²⁾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모든 언어가 똑같다 라는 일반적 원칙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언어 체계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4. 2. 3. 優越性(Prestigio)

二重言語를 사용하는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태도는 優越性(Prestigio)이다.

優越性이란 地位를 얻는 데 필요한 언어에 부여되는데 파라과이에서는 西語에 優越性을 부여한다고 Joan Rubin은 지적하였다.⁶³⁾

파라과이인들이 과라니語를 사용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적 地位를 얻기 위해서는 과라니語를 배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사회적 地位를 얻기 위해서는 西語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⁶⁴⁾

German de Granda의 직접적인 조사에 의하면 西語를 모르는 과라니語 單一 話者

61) Garvin y Mathiot, *op. cit.*, p. 35.

62) *Ibid.*, p. 39.

63) Joan Rubin, *op. cit.*, p. 126.

64) *Ibid.* p. 126.

에게 또 파라니語를 모르는 西語 單一話者에게는 優越性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⁶⁵⁾ 다시 말해서 파라니語는 파라과이인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알아야 하고 더불어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西語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西語는 광범위한 대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파라니語는 그들 民族을 화합시키고 동시에 그들을 다른 中南美 國家들과 구분지어 주는 언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⁶⁶⁾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태도를 종합해 볼 때 거의 모든 話者들이 二重的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파라니語에 대한 肯定的・否定的 태도를 시사하는 것이다. 즉 배타적이기도 하고 사랑과 自負心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二重的 태도는 植民地 時代의 정신적 사고를 잘 반영해 주는 것이다. 支配者와 被支配者의 언어였던 歷史的 사실을 오늘날에도 간직하고 있다 하겠다. 그들의 二重的 態度는 파라니語로 표현하는 Karaiñe'é와 Avañe'é란 단어에 명백하게 나타난다. 전자는 '主人의 언어'란 뜻이고 후자는 '平民의 언어'란 뜻으로 각각 西語와 파라니語를 칭하는 말이다.⁶⁷⁾

3. 파라과이의 언어

3.1. 일반적 특징

한 사회에서 450여 년이 넘도록 두 언어가 並存한 경우 단지 함께 사용되어 각각 자기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상호 침투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二重言語使用者(bilingüe)'란 엄밀한 뜻으로 보았을 때 두 언어를 똑같이, 아니 거의 똑같이 말할 수 있는 個人을 말한다. 이런 견지에서는 두 언어사이에 相互 影響의 現象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二重言語使用者(두 언어를 다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는 이상적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

아마 前 章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二重言語使用者는 두 언어 모두를 능통하게 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파라과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두 언어 코드 사이에서 복잡한 相互 影響의 과정과 접하게 된다. 西語가 파라니語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반

65) Germán de Granda, *op. cit.*, pp.71-72.

66) *Ibid.*, p.72.

67) Rubén Bareiro Saguier, "Colonialismo mental en el bilingüismo paraguayo de nuestros días", *Centro Paraguayo de Estudios Sociológicos*, Asunción, 1981, pp. 172-173.

대인 파라니語가 西語에 미치는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파라과이의 언어라 할 때는 파라니語와 西語를 말한다. 그러나 사실 파라과이에서는 대부분이 파라니-西班牙語(guaraní español)와 西班牙-파라니語(español-guaraní)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파라과이의 언어는 450년이 넘게 서로 공존하여 오늘날에는 두 언어가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혼합 현상은 個人的 次元에서의 단순한 혼합 현상이 아니라 社會的・國家的 次元에서 빚어진 두 언어의 접촉의 결과인 것이다.

3. 2. 西班牙-파라니語(español-guaraní)의 특징

아메리카의 殖民地化로 移植된 西語는 몇 세기가 지나면서 本土 이베리아반도의 西語와는 현저한 차이를 띄게 되었다. 이베리아반도 西語는 특히 파라과이의 西語와는 더욱 더 그 차이가 심한데 이는 바로 파라과이의 독특한 言語學的 현상에 起因하는 것이다. 本章에서 제시되는 例文들은 Augusto Roa Bastos와 Julio Correa⁶⁸⁾의 작품 속에서 채택한 것이며 이들 例文속에서 파라과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확실히 混合語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方言學的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다.

3. 2. 1. 音聲學的 특징

Germán de Granda에 따르면 파라과이 西語에서 파라니語의 영향이라 생각되는 音聲學的 現象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⁶⁹⁾

西語 音韻體系의 무성구개파찰음(Africada palatal sorda) [ç]를 무성구개마찰음(fricativa palatal sorda) [š]로 발음하는 것과 파라니의 제 6母音인 [y] 중・후 폐쇄모음(Centro posterior cerrada)의 사용과 단순 진동음(vibrante simple) [r]의 확대 사용 즉 단어의 어두에 나오는 [r]과 어간 모음 사이의 [r̄]도 단순 진동음 [r]로 발음하는 것 등이다.

[š]는 농촌의 中・下流層과 도시의 외곽지역으로 그 사용이 국한된다.

일반적으로 복수 진동음(polivibrante) [r̄]로 발음되어야 하는 경우 파라과이에서 단순 진동음(monovibrante) [r]로 발음되는 현상은 파라니語의 영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파라니語에는 복수진동음의 調音 方式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Germán de Granda는 주장하였다.⁷⁰⁾

68) Augusto Roa Bastos는 1989년에 Premio Cervantes를 수상하였다. 파라과이를 대표하는 작가로 파라니語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사람이다. 그의 작품 속에서는 西班牙-파라니語(español-guaraní)의 例文을 발췌하였다. Julio Correa는 처음으로 파라니語로 극을 쓴 작가로 평가된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는 파라니-西班牙語(guaraní-español)의 실례를 찾아 보았다.

69) Germán de Granda, *op. cit.*, p. 85.

70) *Ibid.*, p. 87.

3. 2. 2. 形態・構文論的 특징

3. 2. 2. 1. 파라니語 形態素의 借用

오늘날 파라과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西語에서 파라니語 形態素의 사용을 현저하게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들 形態素들은 西語 文章 속에서 파라니語와 똑같은 형태와 가치로 사용된다.

파라과이 西語에 사용되는 파라니語 形態素는 5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名詞, 代名詞, 動詞, 副詞 그리고 感歎 形態素이다.

3. 2. 2. 1. 1. 名詞기능의 形態素

오늘날 파라과이 西語에 사용되는 名詞기능의 파라니語 形態素는 다음과 같다.

1) 축소 接尾辭 -í

“No, traé primero el rancho-í.”
(*Los monólogos*, p. 60)⁷¹⁾

2) 파라니語의 複數를 나타내는 接尾辭 -kuéra

“Contra ello-**kuéra** tenemo' que levantarno'”.
(*El trueno entre las hojas*, p. 165)⁷²⁾

3) 최상급 接尾辭 -ité와 -eté는 파라니語와 마찬가지로 名詞, 形容詞, 動詞, 副詞에 붙여 사용된다.

“Nada...vo picó está loco, mi hijo nada **ité** me dio.”
(Don Eulogio, versión española, p. 228)⁷³⁾
“A la pinta, chamigo, vine devarde **eté**...” (*El trueno*, p. 235)

4) 接尾辭 -kué는 지나간 과거를 뜻한다.

su novia**kué**(=la que fue su novia)
mi rancho**kué**(=el que fue mi rancho) (*G.G.*, p. 172)⁷⁴⁾

3. 2. 2. 1. 2. 代名詞 기능의 形態素

오늘날 파라과이 西語에서 찾아볼 수 있는 代名詞 기능의 形態素에는 두 가지가

71) Cfr. Joré Luis Appleyard, *Los monólogos*, Germán de Granda, *op. cit.*, p. 171에서 재인용.

72) Augusto Roa Bastos, *Madera Quemada*, El Lector, Asunción, 1983.

73) Julio Correa, *Don Eulogio*(서반아어판), Asunción, Colegio San José, 1980. 이 작품은 앞으로 D.E. (a)로 표기.

74) Germán de Granda, *op. cit.*, 172.

있다. 양쪽 모두 人稱 代名詞에 형식적으로 속해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所有格 內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과라니語에서 主格 人稱 代名詞가 名詞를 선행하는 경우 所有의 의미로 대치되기 때문이다. 3人稱, 5人稱, 6人稱은 제외된다.⁷⁵⁾

“¿De dónde salí, **nde** tipo?” (*Los monólogos*, p. 44)

一人稱 主語 **che**는 所有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된다.

“¿Y qué tal, Jocó, **ch'**amigo?” (*H.H.*, p. 34)⁷⁶⁾

“¡**Che** Dios, tan lejos!” (*H.H.*, p. 85)

“La misa, la misa macanuda que te voy a mandar a hacer...**che**ama.”
(*D.E.*(a), p. 225)

3. 2. 2. 1. 3. 動詞기능의 形態素

動詞기능의 形態素 중 파라과이 西語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形態素 몇가지를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1. 接辭 **pa**는 과라니語에서처럼 西語에서도 動詞 뒤에 붙어 사용되는데 **pa** 자신이 속한 文章의 擬問特徵을 나타낸다. 擬問文에서 마지막 音調가 下向인 것은 과라니語만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擬問形態素의 사용은 文章의 不分明함을 예방하기 위해 의무적이다.⁷⁷⁾ 다음 例文에서 보듯이 과라니語와 마찬가지로 西語도 이 接辭 **pa**를 直接 擬問文과 間接 擬問文에 모두 사용한다.

“¿Se acuerdan **pa** de Simón Bonaví?” (*El trueno.*, p. 169)

2. 擬問文이 놀라움이나 感歎의 의미를 나타낼 때 과라니語와 파라과이 西語는 **pa** 대신에 接辭 **piko**⁷⁸⁾ 혹은 **pió**를 사용한다.

“¿Adónde **pikó**, che amamí?” (*H.H.*, p. 275).

“¿Usté no sos el dueño de la casa...quién **picó** usted...¿ qué **picó** se antoja vos...?” (*D.E.*(a), p. 233)

3. **ko**는 과라니語에서 단지 音價만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한 文章의 내용을 강조하는 接辭로 主語와 述語를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 파라과이의 西語에서는 과라니語에서처럼 無意味로 쓰이기도 하나 正常的으로는 강조하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⁷⁹⁾

75) Antonio Guasch, *op. cit.*, pp.96-98.

76) Augusto Roa Bastos, *Hijo de hombre*, El Lector, Asunción, 1982.

77) Germán de Granda, *op. cit.*, p.173.

78) 위의 예문에서 살펴보면 철자와 불일치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자마다 상이한 철자를 쓰고 있으므로 본인은 원본 그대로 인용하겠다.

79) Germán de Granda, *op. cit.*, p.174.

“La ropa de Juan yo nomá **co** voy a lavar...” (D.E.(a), p. 235)

4. 명령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파라니語에서는 接辭 ‘na’를 動詞 뒤에 붙여 命令文에서 사용한다.⁸⁰⁾ 파라과이 西語에서도 이 접사를 같은 기능으로 사용한다.

“¡No te mueras **na**, bolí!...; No te vayas **na** a morir!...” (H.H., p. 362)

“Venina, venina, vamo haul bien mi corazón querido...” (D.E.(a), p. 239)

5. 파라니語에서는 命令을 강조하기 위해 動詞 뒤에 ‘oke’나 ‘ke’를 붙인다.⁸¹⁾ 파라과이 西語에서도 같은 의미로 動詞 뒤에 붙여 사용한다.

“Y vo' cuidate-**ke**, Solano. Yo ya te avisé”. (El trueno., p. 155)

6. 파라니語 接尾辭 ‘-ina’는 語尾의 변화에 따라 動詞의 지속적인 進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⁸²⁾ 파라과이 西語에서는 3人稱 형태인 ‘hina’를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El muchacho estudia **hina** en ese Colegio”

“José trabaja **hina** en Asunción”

“Llueve **hina** en la Cordillera”. (G.G., p. 176)

3. 2. 2. 1. 4. 副詞機能의 形態素

다음의 例에서 파라니語의 副詞 機能 形態素를 찾아 볼 수 있다.

1) Voí(=luego)

“Agüelito ko e'sordo y ciego. No ve ni oye nada **voí**.” (H.H., p. 89)

2) Mba'e(=tal vez, aproximadamente)

“Y yo nicó, si usted quiere me voy a casar **mbaé**...” (D.E. (a), p. 241)

3. 2. 2. 1. 5. 感歎機能의 形態素

끝으로 파라니語에서 派生된 感歎 形態素들 중 파라과이 西語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E'a(=oh, exclamación de sorpresa o alegría)

“¡**Eá** yo no sabís!” (Kurupí, El baldío, p. 125)

“¡**E'á**, un mozo tan buen mozo y tan enojado!” (H.H., p. 191)

80) Ibid., p. 175.

81) Ibid., p. 175.

82) Ibid., p. 176.

2) **Angá** (expresión de pena o compasión)

“Pobrecito...se cortó **angá** co su pescueso...” (*D.E.(a)*, p. 235)

“No te pone mal...Me contó nomá que ustedes, los Primera División, patean fuerte luego; sos malo, itépa...le quiere patear al pobre mitái **anga**.”

(*D.E.(a)*, p. 240)

3) **Chake/hake**(=¡cuidado!, ¡atención!)

“¡Quémar el Cristo! ¡**Jhake** ra'é!” (*H.H.*, p. 40)

“¡**Chake**, Ulogio!... -susurraba el miedo en el terraplén, en las olerías, en los rozados, en los galpones”. (*El trueno*., p. 150)

4) **Naombrena/naorrrena/naombré/naumbré** (expresión de rechazo)

“**Naombré**, prefiero no má como de ante, do guitarra y un arpa.”

(*Los monólogos*, p. 101)

3. 2. 2. 2. 構文論的 現象

西語에 있어 파라니語의 構文論的(calco) 현상은 그 결과의 構造的 특성과 파라카이 西語에서의 광범위한 사용에 의해 더욱 확연해진다.

파라카이 西語에는 파라니語의 形態素 pa와 ma를 構文論的으로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Pa는 그의 西語 형태인 todo로 표현하고 ma는 ya로 대치하여 動詞가 특별히 현재나 과거를 뜻하는 경우에 강조 용법으로 쓰인다.⁸³⁾

Ya trabajé todo ya=Ya terminé de trabajar.

La comida se enfrió todo=La comida acabó por enfriarse.

Ya llegamos todo a Asunción=Hemos llegado a Asunción. (*G.G.*, p. 257)

파라니語의 動詞는 그 뒤에 일정한 接辭를 사용하여 動詞의 뜻을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接辭들은 命令文에 사용될 때 특히 더 많은데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na, ke, kena, katu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mí, míme, mimo를, 否定的 내용에서는 ani, anike, ánima를 사용한다.⁸⁴⁾

파라카이 西語는 이들 接辭를 借用하여 원래의 뜻으로 사용하는데 이들 중 接尾辭 -mi (un poco)는 命令文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動詞와도 같이 사용되며 文章을 부드럽게 만들고 청유, 친분, 경중한 예의 등의 의미로 쓰인다.

“Muchacho, vení **un poco** que te llama el patrón.”

“Acá vengo **un poco** para hablar con vos.” (*G.G.*, p. 258)

83) Germán de Granda, *op. cit.*, p. 256.

84) *Ibid.*, p. 258.

3.3. 파라니-西語(guaraní-español)의 특징

本章에서는 西語가 파라니語에 미친 영향 즉, 파라니語에 대한 西語의 침투현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파라니語는 그들의 文化가 스페인화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스페인화 되었다. 이것은 새로운 文化와의 접촉에서 필요한 예의와 사물의 명칭을 받아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形態・構文論的 次元에서도 새로운 범주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Marcos Morínigo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몇세기가 흐르는 동안 파라니語는 西語에 전염되어 자신과 다른 언어를 구별시켜 주는 전형적인 요소들을 잃어버리고 있으며 그래서 파라니語 文章은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 西語 文章을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파라니語는 西語의 構造를 띄고 있지만 파라니語로 말하여 썼을 뿐이다.”⁸⁵⁾

계속해서 이런 침투현상이 파라니語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Julio Correa의 작품에서 발췌한 예문을 보며 분석해 보자.

3.3.1. 音聲學的 特徵

일반적으로 단어만을 借用할 경우에는 기존의 언어에 있던 철자만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파라니語도 西語단어를 借用할 경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자로 대체 사용한다.

“Nde **apelído** jepe inambue ko’ ága.” (*Sandia Yvyvy*, p.16).⁸⁶⁾

“Ohasávo **pyénte** tuja ipsyríi...”. (*S.Y.*, p.17)

“Karai Eloy **vaka** niko ojuka”. (*Karú Poká*, p.33).⁸⁷⁾

“...nde po rupi mante rejapova’era **hutisia**.” (*S.Y.*, p.14)

/r/와 /l/의 혼동은 물론 다른 中南美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나 파라니語에 /l/가 없으므로 /r/로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Mardesído...Mardesído repyta...nde sandia vyvyguy...” (*S.Y.*, p.20)

“Neremanomo’ ãi piko che niño durse.” (*S.Y.*, p.14)

철자 ‘b’ 대신에 母音 ‘u’를 유성치경설측음 /l/과 유성치경진동음 /r/ 앞에 사용하는 현상도 파라니語에 二重子音 /bl/과 /br/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85) Cfr. Marcos A. Morínigo, Beatriz U. de Herreros, *op. cit.*, p.35에서 재인용.

86) Julio Correa, *Sandia Yvyvy*, Libro Paraguayo del mes, N° 6-marzo de 1981, Asunción, pp.9-20.

87) Julio Correa, *KarúPoká*, Cuadernos de Literatura popular, Asunción 1980, pp. 11-47.

그리고 과라니語에는 음소 /b/가 음절 첫머리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대신 ‘g’로 표현한다.

“Guenas tardes...Guenas pa hina?” (K.P., p. 45)

3. 3. 2. 形態・構文論의 特徵

3. 3. 2. 1. 冠詞의 생략

과라니語에는 冠詞가 생략되고 없다. 그래서 西語에서 冠詞를 借用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冠詞를 그대로 借用하지 않고 독특한 과라니語 構造的 문법조건에 따라 축소하여 받아들였다. 사실상 과라니語에는 性(género)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 즉 單數, 複數로 제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土着語에 의해 받아들여진 西語의 冠詞는 單數에는 ‘la’를, 그리고 複數에는 ‘lo’, 혹은 ‘los’를 性의 구별없이 사용한다.

“¿Ha lo mitā, maiteípa?” (K.P., p. 13)

위의 例文에서 mitā는 소년을 뜻하는 名詞로 ‘lo’를 사용하여 複數의 의미를 전달한다.⁸⁸⁾

3. 3. 2. 2. 性・數의 不一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라니語에는 性이 없기 때문에 形容詞도 性의 변화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西語 語彙 形容詞를 借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名詞와 形容詞의 性의 一致를 찾아 볼 수 없다.

“Qué lindo muchacha oiko ndehgui, nde che áma.” (K.P., p. 28)

“Qué barbaridar, Dio Míos!” (K.P., p. 29)

“Recambiáta piko mboka garrote rehe, **mi** hijas, mi encanto floridos.”
(K.P., p. 31)

3. 3. 2. 3. 動詞의 文法的 變化

과라니語의 動詞는 西語와 마찬가지로 人稱과 數에 따라 동사변화를 한다. 과라니語로 動詞를 표현할 때 그 動詞의 構造的 혼합 즉, 과라니語와 西語의 혼합동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과라니語가 갖고 있는 動詞의 法과 態, 時制에 따라 分類하여 例文을 발췌 분석하였다.

1. Verbos areales

88) 과라니語에서는 接尾辭 -Kuera를 명사 뒤에 붙여 複數를 만든다. 본 논문 名詞 기능의 形態素를 참조.

이 動詞는 語幹(raíz 혹은 radical) 앞에 人稱代名詞를 놓는 것이 특징이다.⁸⁹⁾

다음의 例文은 西語 語幹을 갖고 있는 動詞에 과라니語 人稱代名詞가 혼합된 형태들이다.

“Oú'yro anive che saludá ha **ro**autorizá sificientemente che nupa hagua.”
(D.E.(b), p. 244)⁹⁰⁾

“Che niko **a**servi hína che pátriape. Che ruvicha he' íva mante ajapovaerã, tose ose hápe. La patria **re**servi aja ore agente roime vaerã ore ruvicha órdenpe. Ha'e he'ívape.” (K.P., 38)

“Yramo he'ívaerã ñanderehe **ja**conspiraha ha ñande rerahauka cárcelpé.”
(K.P., p. 16)

2. Verbos pronominales

이 動詞는 他動詞로서 人稱代名詞를 直接目的語로 수식하는 動詞를 말한다. 이 動詞는 人稱과 數를 나타내는 接頭辭가 없고 대신 人稱代名詞가 그 자리에 오게 된다. 그렇다고 動詞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動詞인 술어의 核心이다.⁹¹⁾

“**Nd**achegustái reñentremete che asunto kuérape.” (S. Y., p. 18)

“**Nand**egustái ramo reko, máke repoi pygui ha opa.” (S. Y., p. 18)

위의 첫번째 例文에서 보듯이 動詞 Ndachegustái는 西語 動詞 gustá와 과라니語의 接辭 nda...i와 人稱代名詞 che로 구성되어 있다. nda...i는 否定文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위의 첫 例文의 뜻은 No me gusta gue te metas en mis asuntos. 이다.

두번째 例文의 na...i 역시 否定文에 쓰이는데 人稱代名詞가 鼻音으로 시작되는 경우에 쓰인다.

3. 否定動詞(Formas negativas)

과라니語의 否定動詞는 nda+動+i의 형태로 표현하는데 nda를 西語의 否定詞 No로 대체 사용한다.

“Taita **no**vendeséi...” (K.P., p. 29)

4. 時 制

89) Antonio Guasch, *op. cit.*, p. 114.

90) Julio Correa, *Don Eulogio*, Teatro y Cine, Asunción, 1980, pp. 241-265. 과라니어 번역판은 D.E.(b)로 표기

91) Natalia K. de Canese, *op. cit.*, p. 76.

과라니語의 時制는 過去, 現在, 未來로 표현되며 單音節과 多音節의 接尾辭로 표현한다.⁹²⁾

現在는 時制의 接尾辭를 생략함으로써 現在임을 나타낸다.

“I **gusto** múnlope, I gusto péeme...” (D.E.(b), p. 264)

“Nde niko oñe **convení** pereí kuña i ñaka guapýva...” (D.E.(b), p. 248)

“Pe **serví** katu pende patria !...Pe **serví** katu!...” (K.P., p. 39)

未來는 5가지의 接尾辭로 나타내는데 ta, pota, va'erā, ne, arā.가 그것이다. 西語 動詞語幹에 이들 接尾辭를 붙여 사용한다.

“Pecche **acompañata**. Areko órden de captura penderehe.” (K.P., p. 37)

“...ha lo que'e ko ñande detino, oñe-cumpli-**va' erā** katuete.” (S. Y., p. 17)

過去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時制 接尾辭가 필요하다. 過去時制를 나타내는 接尾辭는 akue, mi (átono), kuri, va'ekué, raka'e y ra'e.이다.

“Re ganase pa magmáro plata o perde va'ekué ne rembireko amyryi?”

(D.E.(b), p. 243)

5 受動態

受動態에서 接頭辭 je는 일반 動詞과, ñe는 鼻音動詞과 함께 쓰인다.

“Ma' erā reju vove nereñ**e**presentái chéve, comisariápe?” (K.P., p. 48)

위 例文의 動詞를 분석해 보면 語幹 presenta와 否定詞 ne...i, re는 2人稱代名詞, 그리고 ñe는 受動態에 쓰이는 것이다.

6. 命令文

命令文의 특징은 肯定文과 같은데 areales動詞 2人稱 單數의 re(rei)를 e(ei)로 대체 사용한다.

“**E**denunciána.” (D.E.(b), p. 254)

3.3.2.4. 後置詞와 그 사용

과라니語에는 前置詞가 없고 後置詞(posposición)를 사용한다. 西語의 名詞를 借用하여 사용하면서 前置詞가 아닌 後置詞를 이들 名詞에 붙여 사용하는 것이다. 本 연구에서는 後置詞 pe만을 발췌하였는데 이는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92) Natalia K. de Canese, *op. cit.*, p. 91.

“...cándido líuro-**pe** síyno ha osê upe iplaneta-**pe** omanova'erāha ȳpe...”

(S.Y., p. 16)

“Ndachegustái reñentremete che asunto kuéra**pe**.” (S.Y., p. 18)

“Pero oí ñane contrape el artículo 32, 517 ha el artículo 10, 023.”

(K.P., p. 20)

“He'i ohótaha omombe'u comisario**pe**.” (K.P., p. 24)

“Ha'e piko oikuaa Pedro José**pe** he'ivaekue karai Eloy?” (K.P., p. 30)

“He'i ndaje aipo destín**pe** oguerahaukataha.” (K.P., p. 34)

“Ndéko rehóta avei preso ned invidúo. Rejapo propaganda ore cónt**rape** reikóvo, nde canalla.” (K.P. p. 37)

3. 3. 3. 語彙

두 언어가 共存할 경우 상호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語彙이다. 요빠라(yopará)에서도 다양한 西語의 語彙를 찾아 볼 수 있는데 물론 대부분의 경우 과라니語에 있는 철자로 표현한다.

西語로 사용되는 語彙의 종류를 살펴 보자.

3. 3. 3. 1. 專門用語

1. 法律用語

“Ha niko chamigo, **registro** de la propiedape ojejuhu que el posesión re ocupáva no llenai los **requisito legal** correspondiente de la **ley orgánico**.” (K.P., p. 20)

“Ímía umi **artículo** gui ikatu gueteri ñañe**defende**. La iphyívahína ku pe **ley orgánica** ha pe **código** rural pyahu. Ha hi'áriete umi **concordato** ñapysjepinecontrape! Pe **ley** de esplotación opárupi oñemotiaimbaite nderehe pe nuevos **constitución** rupi chamígo.” (K.P., p. 21)

2. 宗教用語

“Mba'e piko kóva che **Dio**. Mba'e kóva che koraso-mi del **alma**.” (S.Y., p. 15)

“Néi, néi che korasaõ **santo**... Ahara'erā tupaópe nde **critiáno**.” (S.Y., p. 17)

“Pejuka...pejuka la karai Zoilo. **Jesucristo** **crusificado**. **Hijo de la Virgen María**.” (S.Y., p. 20)

“Oime oho **capillape**, oguerúta mandyju ra'yi ha avati ave.”

“Karai Eloy ndie **isanto** pora.” (K.P., p. 34)

“**Padre, Hijo, Espíritu Santo! Santa Catalina** ha **Santa Librada**, toho penendive che ra'y kuéra.” (K.P., p. 45)

“Aipo **reino de los cielos** pe mante ndaje ñande mboria hu jajuhu vaera upéa.” (K.P., p. 41)

3. 醫學 用語

“Juego central-etépe voi niko ojejapira'e. **Terapléutica**-pe mante péva okuera vera ha upéva **espital**-pe mante jajuhúne. Ha te koteve **vermífega**, ha tekotevê **vaccillo** de kog, ave; ha ñande **botica**-pe ni copretérito ndajahúi.” (S. Y., p. 15)

“Mara pio pe vale aipóro, mamo pio oime la pende rayo, umi mba'asy eta ...pe **parálisis infantil** ha pe gieble...” (D.E.(b), p. 253)

4. 軍事用語

“Na ndetujaitei gueteri niko chamígo rejereclara hagua **huéra de combate**.” (D.E.(b), p. 245)

“**Caballería**, Upepénte tereho ejeheka.”

“Chamígo, upépe ko oí mokoi **Sargento** i primo.” (D.E.(b), 255)

“Yma..., ymaite japerde petei **guerra** ha ojepe'a parei ñandehgui ñande yvy!...” (K.P., p. 47)

“Ou Albino jara **revolución** ha aipo montonero gobirtnita oguahê osakeapa nde rúpe”. (S. Y., p. 19)

5. 스포츠用語

“Ndéiko **pelotéro** aipóro”.

“Nde memete niko remoinge la **gol**.” (D.E. (b), p. 255)

“Aga reikuaáne, ága reikuaágane...una promesa de **fúrbo** paraguayó ndaje... (D.E. (b), p. 258)

3. 3. 3. 2. 親族에 관한 用語

과라니語에는 친인척(삼촌, 조카, 장인.....)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西語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 단 과라니語에 있는 철자에 맞추어서 대체되었다. 과라니語의 친인척을 부르는 명칭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⁹³⁾

“Mba'égui piko nerehenói ukái ku ne **sobrina**... (D.E. (b), p. 242)

“Chamígo, upépe ko oí mokoi **Sargento** i **primo**”.

“Upépe ko avei hata oínupa, i **sobrino**... (D.E. (b), p. 255)

“...**mamá** niko pe ne kamisá pyti' águi...” (D.E. (b), p. 264)

93) Tadeo Zarratea, *Avañe'ê*, Asunción, Editorial Emasa, 1981, p. 51.

“Upéramo che mandúa nde **aguélo** rehe.” (S.Y., p. 19)

3. 3. 3. 3. 數(Numerales)

과라니語의 數체계는 4진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10진법을 사용한다. 이는 과라니語를 말하는 과라과이인들이 이미 西語의 數체계를 자주 사용하게 되어 10진법으로 고쳐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결과라 할 수 있다.⁹⁴⁾

숫자 5는 po라고 하였는데 이는 과라니語로 ‘손’을 뜻한다.

숫자 10은 pa라고 하였는데 ‘끝나다’라는 뜻의 과라니語 opa에서 따온 것이며 십진법의 마지막 숫자를 뜻한다. 그밖의 숫자는 交着法에 의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1은 petei라 하고 5는 po, 따라서 6은 petei po라 한다.

이와 같이 西語 數체계에 맞춰 10진법의 과라니語 숫자가 만들어 졌으나 계속해서 西語로 숫자를 표현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5以上の 숫자는 반드시 西語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Ha he'ími niko hermanítópe aipo **dociento** péso ome'etaja ichupe, chere-
raha hagua hógape.” (K.P., p. 30)

“**Cien** ha **dociento** niko.” (D.E. (b), p. 244)

“Mba'éicha pio rerúta fósforo a **seis** ko **cinco** ame'éva ndéva ndéve”.

(D.E. (b), p. 246)

“Ha mba'e ajapóta ko **cincuenta** rehe, ko ché turco pe voí ame; e vaera
treinta.” (D.E. (b), p. 250)

“...**sei, siete, ocho** costilla rupi anzumi ra'e chugui”. (D.E. (b), p. 252)

3. 3. 3. 4. 接續詞

西語의 接續詞 또한 요빠라(yopará)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Plata **o** perde va'ekué ne rembireko amyryi?” (D.E. (b), p. 243)

“Mboy año **o** nacé haguépe pa omano ne rembireko?” (D.E. (b), p. 244)

“Voieterei niko, ne'íra niko **ni** noventa opa”. (D.E.(b), p. 246)

“Mba'e pio ou **ni** oho chéve upéa”.

“Siete ha'e do setenta **y** de a la cabeza, ndaikatui re javyvo”. (D.E. (b),
p. 253)

“Ndahayhúi **ni** michimi”.

“**Ni** che kua ti rehe ndopokói upéva”. (S.Y., p. 15)

“Aju niko aína nerendéape **como** un intermediario desinteresados.” (K.P.,
p. 20)

94) Antonio Guasch, *op. cit.*, p. 82.

“Pero chamígo, ema'ena con criterio sereno y justicioso”. (K.P., p. 22)

“Ndererekovaera como una señora de presebre”. (K.P., p. 30)

“Mboy año o nacé haguépe pa omano ne rembireko?” (D.E.(b), p. 244)

4. 요빠라(yopará)의 言語學的 展望

제 3 장에서 분석한 결과 파라니語는 西語와의 접촉에 의해 전형적인 모습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반대현상으로 西語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 상호침투현상은 두 언어의 混合의 결과며 요빠라(yopará)는 바로 이 두 언어의 혼합의 결과인 것이다. 本章에서는 오늘날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요빠라(yopará)의 現 모습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우선 요빠라(yopará)의 定義가 바르게 이해됨이 선결과제이다.

Ernesto Giménez Caballero는 제 4 차 西語학술회의(IV Congreso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에서 다음과 같이 요빠라(yopará)를 定義하였다: “이곳 파라과이에서 불리워지는 yopará 혹은 yopará-ñeé는 西語와 파라니語의 혼합의 결과인 大衆言語를 말한다.”⁹⁵⁾

또한 José Pedro Rona도 “파라니語 文章 內에 불필요한 西語단어의 혼합”⁹⁶⁾이라 고 요빠라(yopará)를 定義하였다.

또한 Antonio Guasch와 Diego Ortiz의 파라니語-西語, 西語-파라니語 사전에는 요빠라(yopará)를 “혼합현상으로 西語도 잘 모르고 파라니語도 잘 몰라 두 언어를 섞어서 말하는 은어이다”⁹⁷⁾라고 定義하고 있다.

요빠라(yopará)를 사용하는 파라과이인들에 대한 이와 같은 否定的 立場은 A. Guasch의 말에서 더욱 확실하게 설명된다: “요빠라(yopará)는 순수한 언어라고 할 수 없다. 완벽한 二重言語使用을 위해서는 西語도 연구하고 파라니語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西語를 사용할 때는 西語로만 확실하게 말하고 파라니語를 사용할 때는 西語 語彙를 사용하지 말며 파라과이인들은 이 두 언어를 소유함을 자랑스럽게 여기자.”⁹⁸⁾

이들 언어학자들은 요빠라(yopará)를 파라니語 構造에 입각한 西語와 파라니語의 혼합으로 定義한다. 그러나 Graziella Corvalán은 요빠라(yopará)를 “파라니語와

95) Ernesto Giménez Caballero, “El yopará en Paraguay”, Congreso de Academias de Lengua Española, IV (Bs. As.) Academia Paraguaya, Asunción, 1964, p. 1.

96) José Pedro Rona, *op. cit.*, p. 256.

97) Antonio Guasch y Diego Ortiz, Diccionario Castellano-Guaraní y Guaraní-Castellano, Centro de Estudios Paraguayos, Asunción, 1986, p. 180.

98) Bartomeu Meliá, “Hacia una tercera...”, p. 60.

西語 두 언어의 접촉의 결과⁹⁹⁾로 간주하고 guarañol이란 용어가 요빠라(yopará)를 西語로 표현할 때 가능한 번역이라고 덧붙인다.

Corvalán과 뜻을 같이 하여 요빠라(yopará)를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과라니語가 西語에 미친 영향과 西語가 과라니語에 미친 영향을 말한다. 왜냐하면 한 언어가 다른 언어에 미치는 영향에 가장 정확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 언어의 相互影響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들 두 언어의 혼합현상을 연구한 학자들은 Bartomeú Meliá, E. Giménez Caballero, León Cadogan, Graziella Corvalán, German de Granda 등이며 이들은 요빠라(yopará)의 연구에 실질적으로 유용하고 가치있는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文法學者들 개개인이 요빠라(yopará)를 고찰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데에 있다. 하나는 새로운 언어로 또다른 하나는 通俗 언어로 간주하는 것이다.

Ernesto Giménez Caballero는 요빠라(yopará)를 “은어 이상의 것이다. 종족에 기인한 言語學的 見地에서의 새로운 언어다”¹⁰⁰⁾라고 정의한다.

반면에 요빠라(yopará)를 西語 單一言語로 변화하는 과도기의 상태로 볼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¹⁰¹⁾ 다시 말해서 과라니語로 말할 때 과라니語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語彙까지도 西語 語彙를 차츰 사용하게 되면 언젠가는 지난날 명성과 권위를 가지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토착어마저도 쇠퇴해지고 또한 現在 급속하게 쇠퇴해가는 다른 토착어처럼 과라니語도 쇠퇴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과라니語의 소멸을 막기 위해 과라니語 기관들을 창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과라니語의 교육을 중·고등과정에서 의무화한 것도 과라니語의 소멸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언어는 그 언어를 말하는 民族의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라니語는 西語 話者의 數가 增加한다 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파라과이 民族이 그들의 집단적 同質性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여 과라니語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 때에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Marcos Morínigo는 “西語와 함께 혼합되어 사용되는 과라니語의 構造的 예곡은 바로 과라니語 자신이 生存하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댓가이다”라고 주장한다.¹⁰²⁾ 그렇기 때문에 과라니語의 生存이 과라니語 자신의 生存 조건이었다면 과라

99) *Ibid.*, p. 60.

100) Ernesto Giménez Caballero, *op. cit.*, pp. 6-7.

101) Marcos A. Morínigo, “Impacto del español...”, *op. cit.*, p. 609.

102) *Ibid.*, pp. 609-610.

니語가 변화되었다 한들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앵글로 색슨語가 文法과 語彙에 라틴語와 로망스語의 영향을 받아들었다 하여 앵글로 색슨語인 英語가 더 이상 英語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 그것이 소멸되는 위험에 처하지 않는 현실에서 잘 설명된다.

또한 Marcos Morinigo는 언어는 창조에 의해서만 더욱 견고해 진다고 주장하며 파라니語는 젊은 民族의 언어로서 現文化의 표현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새롭게 창조되어 가고 있다고 말한다.¹⁰³⁾

이러한 이유로 요빠라(yopará)가 西班牙語 單一言語로 향하는 과도기 상태라는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밖에 A. Guash의 否定的 반응도 인정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앞章에서 고찰했듯이 요빠라(yopará)의 혼합현상은 단어의 借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3의 언어로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해 볼 만큼 構造的인 면에서 아주 복잡한 형태의 言語學的 現象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Bartomeú Meliá가 언급했듯이 파라과이에서 二重言語使用의 확대는 볼 수 없는 대신 실제 言語學的 傾向이 혼합요소들의 결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혼합현상은 비록 순수 언어학자들의 제안대로 파라니語 교육을 중학교정부터 교육제도에 설정한다 하여도 그렇게 빨리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현상은 450년이 넘도록 두 언어가 상호접촉하여 共存한 결과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한 二重言語使用者가 되려면 또다시 450여 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합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은 파라니語와 西語의 상호침투이다. 이 현상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2단계로 분리된다. 첫 단계는 西語의 일정한 形態學的 요소를 인정하여 파라니語로 표현하는 것이고, 두번째 단계는 정립된 再構造的 결과와 관련되어 파라니語 문법체계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形態學的 요소를 다시 西語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 복잡한 현상은 파라니語에 의한 西語 冠詞 借用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들 축소된 관사의 형태 la, lo가 다시 파라니語의 새 文法體系를 통해 西語에 영향을 주어 축소 형태 그대로 la, lo가 사용된다.

“Pobrecito don Eulogio, la marido de mi amiga íntima, la esposo querido de Ña Metéria, como te vas a...” (D.E.(b), pp. 245-246)

이러한 상호침투 현상은 파라과이의 二重言語使用이 더 이상 파라니語와 西語가

103) *Ibid.*, p. 611.

아니라 오히려 西語化된 파라니語(guaraní españolizado)와 파라니語化된 西語(español guaranizado)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파라니語와 西語가 상호영향을 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언어가 언어학적인 주체이고 어느 언어가 객체인지 구별하기 매우 힘든 결과를 낳는 때가 올 것이다.

이와 같이 狹義의 의미에서 요빠라(yopará)는 파라니語에 西語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파라니語가 被支配 언어이고 西語는 支配언어이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파라니語가 권위가 없는 언어인 반면 西語는 권위의 언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西語가 파라니語에 침투한 정도가 그 반대 경우보다 더 큰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廣義의 의미로 볼 때 필자는 西語에의 파라니語 침투현상 역시 요빠라(yopar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도 혼합현상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파라니語化된 西語(español guaranizado)가 西語化된 파라니語(guaraní españolizado)처럼 심각한 혼합특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앞으로 이 상호영향의 構造가 어디까지, 어떻게 발전할지 누가 예측할 수 있겠는가?

이는 라틴語가 支配言語였던 당시에는 라틴語가 오늘날 死語가 되리라고 아무도 짐작 못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로서는 조금 성급한 假定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 언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構造나 規範 혹은 체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構造의인 면을 상세하게 분석, 분류해 봄으로써 가능한 定義을 내려보게 되었다.

Ⅲ. 結 論

파라과이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諸國들과는 달리 유독 二重言語를 사용하는 독특한 나라이다. 이러한 파라과이의 特異한 언어현상은 두 언어, 즉 파라니語와 西語가 서로 완전히 다른 언어이기에 그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파라니語와 西語는 한 同一言語에서 파생된 두 개의 方言도 아니고 同一한 起源을 갖는 서로 다른 두 언어도 아니다. 西語는 로망스語 계통이고 또 파라니語는 인디언 언어계통인 것이다.

본 연구는 二重言語 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파라과이의 두 언어를 構造的으로 분석함으로써 파라과이 언어 固有의 特異性을 고찰해 봄과 동시에 제 3의 새로운 언어구조를 탄생시키고 있는 오늘날의 파라과이 언어현실을 살펴보았다.

파라과이의 二重言語使用은 간단한 현상으로 생각되지만 두 언어의 기능사이에는 놀랍도록 복잡한 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파라과이 二重言語의 특징을 살펴 보았으며 사회적인 二重言語인 동시에 지역적으로는 농촌과 도시로 구분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二重言語라는 것은 二重言語의 특징이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 특징이기 때문이며, 농촌과 도시의 구분은 도시에서는 대부분이 西語를 사용하고 농촌에서는 파라니語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보다 정확한 파라과이 二重言語 현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파라니語의 일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파라과이인들의 파라니에 대한 태도 및 의식구조를 살펴 보았다.

두 언어가 접촉하며 오랜 시간 함께 쓰여진 결과로 발생한 혼합현상은 불가피한 것이며 被支配者의 언어인 파라니語가 자신의 生存을 위해 지불해야 했던 댓가가 혼합현상이라면 오늘날 요빠라(yopará)가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파라과이는 파라니語와 西語를 사용하는 二重言語使用國이라기보다는 이들 두 언어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파라과이에는 파라니語와 西語 그리고 요빠라(yopará)가 공존하고 있다. 필자의 체험에 비추어 보면 파라과이인들은 대부분 요빠라(yopará)를 사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Bartomeú Meliá가 파라과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二重言語使用國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西語가 파라니語에 미친 영향이 파라니語가 西語에 미친 영향보다 더 많다 하여 대다수의 언어 학자들은 Guaraní-español만을 요빠라(yopará)로 보고 있는 반면 필자는 이를 狹義의 定義라고 생각하고 보다 넓은 廣義로의 의미로 요빠라(yopará) 현상을 Español-guaraní도 포함하는 파라과이 언어의 전반적 현상이라고 定義함과 동시에 파라과이의 二重言語는 더 이상 파라과이語와 西語가 아니라 Guaraní-español과 Español-guaraní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결국 상호 영향의 결과로 생긴 구조적 복합체는 제 3의 새로운 재구조를 탄생시키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 3의 새로운 언어구조를 탄생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파라과이의 언어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이 있기까지의 450여 년 세월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필자는 본 研究를 통하여 요빠라(yopará) 현상을 구조적으로 분석·분류해 봄으로써 요빠라(yopará)를 보다 넓은 廣義의 의미로 定義함과 동시에 요빠라(yopar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요빠라(yopará)의 제 3의 언어로의 변화가능성을 결론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끝으로 본 연구가 언어의 접촉에 관한 앞으로의 많은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희망이다.

BIBLIOGRAFIA

A) Textos consultados

- Correa, Julio, *Don Eulogio*, en Teatro y Cine, Asunción, 1980, pp.241-265 (versión guaraní); pp.219-241 (versión española).
- _____, *Karu Poká*, en Cuaderno de Literatura popular, Asunción, 1980, pp.11-47.
- _____, *Sandia Yvyvy*, en Libro Paraguayo del mes, N° 6-marzo de 1981, Asunción, pp.9-20.
- Roa Bastos, Augusto, *El Baldío*, Buenos Aires, Losada, 1966.
- _____, *Hijo de hombre*, Asunción, El lector, 1982.
- _____, *Madera quemada*, Asunción, El lector, 1983.
- _____, *Yo el supremo*, Madrid, Ediciones Cátedra, 1983.

B) Libros consultados

- Benítez, Luis G., *Historia de la cultura en el Paraguay*, Asunción, Comuneros, 1976.
- Bloomfield, Leonard, *Lenguaje*, Universidad Nacional Mayor de San Marcos, Lima.
- Bynon, Theodora, Versión española de José L. Melena, *Lingüística Histórica*, Madrid, Gredos, 1981.
- De Granda, Germán, *Sociedad, historia y lengua en el Paraguay*, Bogotá, Caro y Cuervo, 1988.
- Fishman, Joshua A., *The sociology of language*, Rowley, Mass. Newbury House Publishers, 1972.
- González, Natalicio, *Ideología Guaraní*, México, Ediciones Especiales: N°37, Instituto Indigenista Interamericano, 1958.
- Guasch, P. Antonio, *El idioma guaraní*, Asunción, Ediciones Loyola, 1976.
- Hudson, R.A., *La sociolingüística*, traducido por Xabier Falcón, Barcelona, Editorial Anagrama, 1981.
- Krivoshein de Canese, Natalicia. *Gramática de la lengua guaraní*, Asunción,

Colección Nemity, 1983.

Lope Blanch, Juan Manuel. *El español de América*, Madrid, Ediciones Alcalá, 1968.

Malmberg, Bertil, *La América hispanohablante: unidad y diferenciación del castellano*, Madrid, Istmo, 1970.

Marcellesi, J.B. y Gardín, Bernard. *Introducción a la sociolingüística*, Madrid, Gredos, 1979.

Montes Giraldo, J. Joaquín, *Dialectología general e hispanoamericana*, Bogotá, Caro y Cuervo, 1978.

_____, *Dialectología y geografía lingüística*, Bogotá, Caro y Cuervo, 1970.

Park, Chong-Suh, *A study of aspects of bilingualism*, Seou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5.

Plá, Josefina, *Literatura paraguaya del siglo XX*, Asunción, Ediciones Comuneros, 1976.

Roa Bastos, Augusto, *Las culturas condenadas*, México, Siglo veintiuno, 1978.

Rodríguez-Alcalá, Hugo, *Historia de la literatura paraguaya*, Asunción, Colegio de San José, 1971.

Rodríguez Molas, Ricardo. *Los sometidos de la conquista: Argentina, Bolivia, Paraguay*, Buenos Aires, Centro Editor de América Latina, 1985.

Rubin, Joan, *National Bilingualism in Paraguay*, Yale University, Ph. D., Anthropology, 1963.

_____, *Bilingüismo Nacional en el Paraguay*, Versión española, México, Instituto Indigenista Interamericano, México, 1974.

Sánchez, L. Alberto, *Reportaje al Paraguay*, Asunción, Editorial Guaranía, 1949.

Sapir, Edward, *Languag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peech*, New York, A Harvest book Hacourt, Brace & World, 1949.

Trudgil, Peter, *Sociolinguistics: An Introduction*, Penguin Books Ltd., 1975.

Weinreich, Uriel, *Languages in Contact: Findings and Problems*, The Hague, París: Mouton, 1974.

Zamora, V. Alonso, *Dialectología española*, Madrid, Editorial Gredos, 1979.

Zarratea, Tadeo y Acosta, Feliciano. *Avañe'e*, Asunción, Editorial Emasa, 1981.

C) Artículos consultados

- Bareiro S., Rubén, "Colonialismo mental en el bilingüismo paraguayo de nuestros días", en *Centro Paraguayo de Estudios Sociológicos*, Asunción, 1982, pp.169-180.
- Bertoni, G.T., "La lengua guaraní. Su importancia histórica y actual",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Informes y Publicidad*, Sa Lorenzo, 1936, pp.16-29.
- Bertoni, Moises S., "Influencia de la lengua guaraní en Sud-América y Antillas", en *Anales Científicos Paraguayos*, Serie II, N°1, 1916.
- Cadogán, León, "Algunos datos para la antropología social paraguaya", en *Suplemento Antropológico de la Revista del Ateneo Paraguayo*, N°II, 2, 1967, pp.429-479.
- _____, "Datos para el estudio de algunas particularidades del guaraní familiar paraguayo", en *Suplemento Antropológico de la Universidad Católica*, Asunción, vol.8(1974), N°1-2, pp.15-49.
- Cassano, V. Paul, "La teoría del sustrato en relación al bilingüismo del Paraguay: problemas y hallazgos", traducido por Graziella Corvalán, en *Centro Paraguayo de Estudios Sociológicos*, Asunción, 1981, pp.497-531.
- Corvalán Graziella, "La educación formal y el bilingüismo en el Paraguay", en *Centro Paraguayo de Estudios Sociológicos*, Asunción, 1981.
- _____, "El bilingüismo en la educación en el Paraguay: ¿Es creativo u opresivo?", en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18(3), 1983, pp.109-126.
- De Granda, Germán, "Notas sobre retenciones sintácticas en el español del Paraguay", en *Lexis*, vol. XII, N°1, 1988, pp.43-67.
- Diebold, Richard, "Incipient bilingualism", en *Language*, vol. 37, N°1, 1961, pp. 97-112.
- Domínguez, Ramiro, "Glosario del jopará", en *Suplemento Antropológico de la Universidad Católica*, vol. XIII, N°1-2, Asunción. 1978, pp.261-274.
- Garvin, L. P. y Mathiot, M. "The urbanization of the guarani language: A problem in language and culture", en J.A. Fishman(ed), *Readings in the Sociology of Language*, The Hague, 1968, pp.365-374.
- Giménez, C. Ernesto, "El yopará en Paraguay", Congreso de Academias de

- Lengua Española, IV (Buenos Aires), en *Academia Paraguaya*, Asunción, 1964, pp. 1-21.
- Grootaers, Willem A., "Dialectology and sociolinguistics: a general survey", en *Lingua* 57, 1982, pp. 327-355.
- Herreros, B. Usher de, "Castellano paraguayo. Notas para una gramática contrastiva castellano-guaraní", en *Suplemento Antropológico de la Universidad Católica*, Asunción, vol. 11 (1976), N°1-2, pp. 29-123.
- Livieres Banks, L. y Dávalos, Juan. "Las lenguas del Paraguay", en *Centro Paraguayo de Estudios Sociológicos*, Asunción, 1981, pp. 43-60.
- Mackey, William F., "The Description of Bilingualism", J.A. Fishman(ed), en *Readings in the Sociology of Language*, The Hague, París: Mouton, 1968, pp. 554-584.
- Manrique Castañeda, Leonardo. "Algunas observaciones sobre el bilingüismo del Paraguay", en *Centro Paraguayo de Estudios Sociológicos*, Asunción, 1981, pp. 61-84.
- Meliá, Bartomeu, "Bibliografía sobre el bilingüismo del Paraguay", en *Estudios Paraguayos*, vol. 2, 1974, pp. 73-82.
- _____, "Diglosia en el Paraguay o la comunicación desequilibrada", en *Suplemento Antropológico de la Universidad Católica*, Asunción, vol. 8 (1973), N°1-2, pp. 133-140.
- _____, "El guaraní dominante y dominado", en *Suplemento Antropológico de la Universidad Católica*, Asunción, vol. 8 (1973) N°1-2, pp. 119-128.
- _____, "Fuentes documentales para el estudio de la lengua guaraní de los siglos XVII y XVIII", en *Suplemento Antropológico de la Universidad Católica*, Asunción, vol. 5 (1970) N°1-2, pp. 119-161.
- _____, "Hacia una tercera lengua en el Paraguay", en *Estudios Paraguayos*, Asunción, vol. 2 (1974), N°2, pp. 31-71.
- Morínigo, Marcos, "Impacto del español sobre el guaraní", en *Centro Paraguayo de Estudios Sociológicos*, Asunción, 1981, pp. 597-611.
- _____, "Unidad y diferenciaciones del guaraní", en *Suplemento Antropológico de la Universidad Católica*, Asunción, vol. 8. (1973), N°1-2, pp. 109-118.
- Plá, Josefina, "Español y guaraní en la intimidad de la cultura paraguaya", en

- Centro Paraguayo de Estudios Sociológicos*, Asunción, 1981, pp. 85-105.
- _____, "La literatura paraguaya en una situación de bilingüismo", en *Estudios paraguayos*, Asunción, vol. 2(1974), pp. 5-30.
- Rona, José Pedro, "El status social y cultural del guaraní en el Paraguay", traducido por Graziella Corvalán, en *Centro Paraguayo de Estudios Sociológicos*, Asunción, 1981, pp. 233-265.
- Rubin, Joan, "Bilingual Usage in Paraguay", J.A. Fishman(ed), en *Readings in the Sociology of Language*, The Hague, París: Mouton, 1977, pp. 512-530.
- Vallagra de García, Sara D. "La palabra. Sus clases morfológicas en la Lengua Guaraní", en *Suplemento Antropológico de la Universidad Católica*, Asunción, vol. 5(1970), N°1-2, pp. 163-200.
- Welti, María, Cristina R. "Bilingüismo en el Paraguay. Los límites de la comunicación", en *Revista Paraguaya de Sociología*, Asunción, vol. 16 (1979), N°46, pp. 63-97.

Yopará: el resultado del contacto entre el español y el guaraní

Kim, Hee-Jeong

El propósito de este estudio ha sido efectuar un análisis lingüístico de los dos idiomas principales del Paraguay: el español y el guaraní para determinar el grado de interferencia en cada idioma como resultado del contacto.

Paraguay es un país bilingüe, un ente histórico peculiar frente a los otros de la misma comunidad latinoamericana. Esta peculiaridad lingüística del Paraguay se caracteriza aún más por su reconocimiento de la vigencia, no de dos dialectos de un mismo idioma ni de dos idiomas de un mismo origen sino de dos idiomas perfectamente diferentes –un típico idioma europeo romance y el de la indígena–.

1. El bilingüismo paraguayo parecería muy simple. Existen sólo dos idiomas que se hablan comúnmente en el país. Pero en realidad, el funcionamiento de estos dos idiomas presenta una relación sorprendentemente compleja. Por esta razón hemos tratado de observar primero las características del bilingüismo paraguayo para llegar a la conclusión de que ese bilingüismo es un bilingüismo social y al mismo tiempo un bilingüismo rural-urbano. Social porque es el país el que presenta el carácter de bilingüe y no el individuo y rural-urbano porque en las ciudades la mayoría de la gente habla español y en las zonas apartadas la mayoría habla guaraní.

Por otro lado, hay lingüistas quienes piensan que el fenómeno lingüístico del Paraguay es un fenómeno no propiamente de bilingüismo sino de dilingüismo o diglosia.

Sea bilingüismo o sea diglosia, lo cierto es que en él existen dos idiomas y estos idiomas han vivido juntos desde la conquista hasta hoy día. Por eso la meta de este trabajo es demostrar la transformación de estas lenguas a través de la convivencia de más de cuatro siglos.

Para comprender con claridad y evidencia, dimos una visión panorámica del idioma guaraní y de las actitudes de los paraguayos hacia su lengua nativa,

el guaraní.

2. La convivencia de dos lenguas en contacto en una comunidad durante más de cuatro siglos no significa que permanecieron en simple contacto. Es indudable que con el correr del tiempo se interpenetraron mutuamente. De ahí hemos analizado la penetración del guaraní en el español y viceversa.

Aunque el español es la lengua de prestigio, la lengua del conquistador y el guaraní, la de no prestigio, la dominada, la interferencia de estas dos lenguas en contacto ocurre al mismo tiempo.

De este modo surgió el término llamado yopará que significa mezcla, sin duda entre el guaraní y el español.

En realidad, en Paraguay ya no se ve la extensión del bilingüismo guaraní-español, sino que la tendencia lingüística real parece que va hacia la amalgama de estos dos idiomas el guaraní y el español. Aunque no haya una estadística del yopará, la mayoría de los bilingües, según mi experiencia no habla ni español sólo por un lado ni el guaraní sólo por otro, sino hablan mezclándolos totalmente. De ahí que no exista un bilingüismo verdadero o general en Paraguay tal como afirma Bartomeú Meliá.

3. Es probable que el fenómeno de mezcla por su grado de interferencia pueda llegar a ser algún día considerado como una lengua independiente del guaraní y del español.

Por ser tan compleja y polémica esta amalgama lingüística del Paraguay nos hemos limitado principalmente a analizar y clasificar detalladamente el fenómeno de la mezcla. Siendo tan singular y general el uso del yopará tanto en el guaraní españolizado en un sentido estrecho y como en un sentido más amplio en el español guaranizado y en el guaraní españolizado, hemos llegado a proponer una hipótesis posible de considerarlo como una interlengua.

Y nuestra posición es considerar que los aciertos y errores cometidos en este trabajo puedan dar origen al enriquecimiento teórico y metodológico de futuras investigaciones en este tan difícil y complejo campo de estudio de las lenguas en contacto.